

過去事는 歷史에 묻는 것인가

李 泳 禧

(漢陽大 新聞放送學科)

국민의 주권이 문민정부로 옮겨 오면서, 과거 30여 년간 부패와 타락을 극했던 군인정권들의 화려한 장막 뒤에 가려졌던 온갖 榮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는 중국 표현이 바로 1993년의 남한 사회의 꼴을 두고 말하는 성싶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군부독재 30여 년의 그 많은 낯뜨거운 일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 소위 '知識人'이라고 자처하는 種의 파렴치한 행태이다. 그 '지식인'을 자처하는 업종과 기능은 다양하다.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관료, 검사, 판사, 언론인, 종교가, 경제인, 기업관리자, 교육자, ... 등등. 허리에 권총 차고 국가를 '私物化'했던 '정치군인'들이야 그 범주에 넣을 필요도 없다. 그들은 바로 그 本態이니까.

지식인이라는 種에 속하는 그 많고 다양한 생물들 중에서도 돌출나게 욱되게 보이는 것이 '대학교수'들이다. 원래 그들의 存在理由에서부터 다른 기능의 지식인들과는 뭔가 달라야 할 것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매일같이 폭로되는 신문기사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추악한 군인권력자들의 팔에 안기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부비면서, 그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알량한 지식의 보따리를 풀고 있는 교수들을 본다. 몇 푼의 재물과 보잘 것 없는 감투에 정신을 판 교수들을 본다.

차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소위 '유신헌법'을 궁리해 낸 韓 모 교수와 具 모 교수를 선두주자로 하여, 마지막에는 북한의 평화적 산업목적의 수력발전소용 댐을 '서울침수작전'을 위한 무기라고 강변하면서 소위 '평화댐'의 이론과 설계로 치부한 무슨 교수와 무슨 교수 ... 등등!! 유신헌법에서 평화댐까지의 꼭 30년 사이에 몇 백 몇 천 명의 소위 '대학교수'라는 지식인이 바보 노릇을 했다. 자신이 병신이 되고 선량한 국민대중을 바보로 만들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치의 風向이 바뀐다 싶으니까 그 '지식인'들의 발언이 또 소연하다. '교수'만이 아니라 특히 '언론인'을 앞세운 '지식인'이라는 종이 야단들이다. 바람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무섭게 모두가 '문민정치'를 위해 싸웠노라고 뛰어나오고 있다. 바람이 거셀 때에는 꿈쩍 않고 옆드려 풍향침만 노려보고 있던 또 다른 종의 지식인 교수들이다.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이다. 바야흐로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시대가 도래했나 보다.

말하는 사람마다 옳고, 글쓰는 사람마다 그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博學과 經綸에는 절로 머리가 수그러질 정도이다. 그런데 그 글들이 너무나 교매하고 그 말들이 너무나 슬기로워서, 이렇게 문민정치 지향적인 훌륭한 교수들이 많은데 어떻게 군인폭정 체제가 30여 년씩이나 계속될 수 있었

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바람이 바뀐 요사이 글과 말의 기회를 차지한 교수들은 대개가 ‘타협·화합·관용·용서’로 시작해서 ‘아량과 이해’를 촉구하고 “과거는 과거에 물어버리자.”는 ‘망각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 같다. “過去非의 판단은 歷史에 맡기자.”는 고매한 설교들이다.

‘타협과 화해...’로 시작해서 ‘역사의 무덤’의 철학으로 끝나는 주장에 별로 반대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철학이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나 “報復은 야만행위다.” 등에 이르러서는 뭘 지 서연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서 굳이 덧붙이거니와, 보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는 잊어버리자.”나 “보복은 안 된다.”는 따위의 주장은, 적어도 지난 30여 년 동안 포악하고 부패타락한 군인정권에 봉사했던 경력이 있는 교수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주장이다.

“惡을 惡으로 갚지 말라!”는 덕행은 지난 시기에 사무친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의 밝음을 위해 지난날 암흑에서 싸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에만 도덕적 무게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지난날의 加害者나 방조자였던 교수는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오늘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 민주주의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살해당하고, 모진 고문으로 병신이 된 이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권력이 베푸는 혜택으로 천하태평을 구가하면서 살아왔을 터이니까 말이다. 그런 지식인은 0.9평 크기의 棺과 같은 캄캄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독방 속에서 몇 백 몇 천 날을 보내야 했던 수많은 정치범들과 양심수들이 겪은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天才라고 자랑하는 교수의 머리꼬셔도 말이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들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도와준 군인독재자들 때문에 ‘容共’이니 ‘左傾’이니 하는 황당한 죄명으로 꽃 같은 젊은 인생의 파멸을 강요당한 신음소리는 그런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의 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共犯者의 역할을 한 지식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不義인 줄 인정하면서도 방관자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체제의 受惠者로 살아온 지식인도 이제는 뭔가 생각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의 풍향이 조금 바뀌는 성실자, 바로 그런 부류의 교수·지식인들의 입에서 “보복하지 말자!”, “과거나 역사에 맡겨라!”라는 합창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 지휘자의 지휘봉에 일사불란 따르는 악사들처럼. 아직 ‘문민정부’나 ‘민주주의’는 겨우 그 첫 발을 디뎠을 뿐인데, 그들은 마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한듯 다시 정세를 호도하고 있다. 風向計의 바늘보다도 더 빠른 變身!

중국의 사상가·작가인 魯迅이 1929년에 쓴 글에 “웨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 있다. 노신은 이 글의 제목을 처음에 “물에 빠진 개(犬)는 두들겨야 한다.”라고 하려다가 모나지 않게 그렇게 고쳤다는 것이다. 그 당시 군벌, 대지주, 정상배, 그리고 외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들의 수탈과 학정과 잔학에 항거하는 민중에 대해서 林語堂이 “관용과 타협으로 용서하고, 과거는 잊어버리자.”라는 글을 내놓았다. “웨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입어당의 이 글을 비판한 것이다.

노신의 글의 정신만을 요약하자면 이리하다. “너를 물러다가 물에 빠진 개는 불쌍하나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설교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컷 두들겨 주어야 한다. 개가 물에 빠진 것을 洗禮를 받으러 들어간 줄 착각해서는 큰일난다. 고이 건져주면 반드시 너를 물러고 덤빌 것이기 때문이다.”

노신은 원래 익살로 이름난 작가라서 그 글대로 들을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30여 년의 폭정과 타락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군인정권 체제의 온갖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특히 교수들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웨어플레이’의 대접은 ‘웨어플레이’의 정신을 알고, 그대로 행동한 상대가 아니면 적용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魯迅의 말이다.

우리 교수들 한 번쯤 음미해 볼 일이다. ■